

30개론 강의안 설명

#1 - 강의안 정리 기준 및 활용 방향	2
#2 - 강의 전체 핵심	3
#3 - 핵심 강의 설명	5
#4 - 30개론 강의별 핵심 정리	22

#1 - 강의안 정리 기준 및 활용 방향

+ 강의안은 2024년 4월까지의 말씀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신입생에게 설명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강의안에 비해 자료가 적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으니 강의 진도를 빠르게 진행하기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강의내용을 이 강의안대로만 강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신입생 상황과 말씀 이해 정도에 맞춰 강의하되, 제공된 강의안을 참고하여 강의하면 됩니다.

+ 30개론 강의 순서도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사탄론 강의를 타락론 전에 해도 됩니다. 타락론 내용에 사탄의 기원에 대해 일부 설명을 했으니 타락론을 강의하고 난 뒤에 사탄론을 강의해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리하게 강의 진도를 진행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 30개론 강의명

강의명이 신입생의 입장에서 최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조정했으며, 자꾸 강의명을 바꾸면 혼동될 수 있어서 이번 강의안에서 명칭을 정리했습니다.

#2 - 강의 전체 핵심

1)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 구원주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흔들어도, 만인들이 흔들려 쓰러져도 요동치 않는다.

예수님은 20년간 선생을 겨울에 온몸이 얼음덩이 몸이 되도록 가르치셨다. 성경을 잘못 알고 인식하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모두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대충 배우고서 새 시대를 따라오면, 따라오다가도 환난 때 쓰러지고 고통 받다가 못 견디고 나가기도 한다.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절대적인 신앙인이 되고, 이어서 황금천국에 간다. 생명들도 간절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성경을 배우려고 해야 한다.

그래서 누가 제대로 가르쳤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난 2023년에도 “내게 배워라!” 말씀을 심정 깊게 전해 주셨습니다.

2) 예수님 육 부활 기독교 교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육 부활로 믿으면 예수님 육만 계속 기다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영 부활로 믿으면 예수님 영 재림을 맞고, 땅에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자와 일체 되어 휴거된다.

0 사탄은 예수님의 영 재림을 맞지 못하게 하려고 영 부활을 못 믿게 한다. 그래야 영으로 오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니까. 야비한 사탄과 무지한 자에게 속지 말아라.

예수님의 영부활 영 재림은 이 시대 최고 핵심인 말씀이다.

3) 새 시대에 온다고 예언된 자는

항상 영이 와서 새 시대 육신을 통해 역사합니다.

항상 새 시대 올 때는 과거 온다는 자는 영이 오고, 그 시대 육을 통해 한다. 육이 있어야 전하고, 세상 육과 통하기 때문이다.

구약 <이사야 66:15~16>에 하나님이 불과 칼을 가지고 온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 한다고 하고, 실체는 신약역사 예수님 육이 했다. 하나님이 왔으나 영으로 오셨고, 그 사명과 심정으로 하나님은 예수님께 임해서 하셨다. <이사야 11:2>에서 하나님의 지혜, 사랑, 지식의 신이 임해 한다고 했다. 그대로 했다.

또, <말라기 4:5>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으나, 메시아를 증거한다는 엘리야는 [영]만 오고, 세례요한의 [육]이 그 심정과 사명으로 행했다.

이 시대도 예수님이 온다고 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으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영만 오고, 실체는 이 시대 합당한 자의 육을 가진 자가 예수님 그 심정과 사명으로 행한다.

#3 - 핵심강의 설명

○ 예수님의 승천과 강림 : 영 부활 영 재림

강의명을 “재림론”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승천과 강림”이라 합니다. 이는 재림이라는 말에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있으니 우선 이렇게 가르치고, 다 배우고 난 뒤에 재림과 같은 말이라고 알려줍니다.

2024년 1월 28일 주일말씀 발췌

이 시대 새 역사 최고 위력의 말씀은 <예수님의 영부활, 영재림>입니다. 재림을 안 자를 통해 예수님이 신부로 삼고 역사를 펴십니다. 새 역사는 땅에서 육신을 중심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시대에서 하나님과 주가 온다고 기다리다 육이 죽으면 영계에서 그 영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다립니다. 새 역사를 기다렸으니, 하나님과 주가 와서 땅에서 행하면 육신 있는 자들이 땅에서 주를 맞고 따르듯 영도 영계에서 주를 맞고 주의 영과 함께 따르며 뜻을 펴니다.

<구약>은 아담 안에 죽은 역사요, <신약>은 예수 안에 산 역사입니다. 또 <신약>은 미래를 모르는 보다 사망 주관권 역사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성약>은 기다린 주를 맞고 살아난 역사입니다.

<구약>에서 차원 높인 <신약> 역사요, <신약>에서 차원 높인 <성약> 역사입니다. <성약>은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어 땅에서 이루고, 하늘에서도 이룹니다.

신약 예수님 때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의 영이 와서 같이 행했습니다. 성약 때도 예수님의 영이 강림하시니 영계에서도 신약의 영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약역사의 뜻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하시고 다시 영이 와서 시대 사명자를 자기의 육으로 삼고 행하며 구원 역사를 하셨습니다.

온전히 아는 자는 온전히 계속 뜻을 펴 이룹니다. 절대자 하나님이 창조 목적의 뜻을 모두 펴 가십니다. 하지만, 모르는 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舊)역사, 신약 속에서는 성약역사를 펴 수가 없습니다. 구약 속에서는 신약역사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른 주관권, 새 역사에서 구역사가 기다렸던 뜻을 펴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육과 영혼이 일체 되어 행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세상 육의 역사에 맞춰 영계 영의 역사도 일체 되어 갑니다. 육의 역사, 2000년부터 예수님이 강림해서 땅에 예비한 자를 통해 천 년 역사를 정확하게 행하며 가십니다. 이미 행하며 왔습니다.

2000년부터 하려면, 그 전부터 역사를 펴 와야 합니다. 고로 1978년부터 하나님도 예수님도 행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한 대로 2000년에 맞춰 1999년부터 ‘그 육으로 외치는 자’와 ‘시대 인(人)구름들’을 타고 행하셨습니다. 구원역사에 계속 사람들이 와서 해 갑니다.

<때>가 절대 오차 없이 맞아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절대 모순 없이 맞아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보낸 자>를 맞아야 절대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영만 와서는 세상 육의 사람과 통하며 역사를 못 펴니다. 육을 쓰고 그 육으로 구원역사를 하십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이 모세나 왕들이나 선지자의 육신을 쓰고 하고 <신약>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 쓰고 구원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인 온전한 뜻을 이루며 행하십니다. 진리를 벗어나도 절대 안 되고 사명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하십니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간 행해 오시고 성약 1000년 뜻을 지금 이루고 행하며 가십니다.

예수님의 영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부활 영재림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이 시대 최고 핵 말씀이다. 예수님의 영부활을 제대로 모르면, 이 시대 예수님이 와도 못 맞는다. 고로 예수님이 이를 확실히 가르쳐 주라 하셨다.

하나님의 좋은 인식관이 들어가려면, 자기 인식 100% 버려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인식이 들어간다. 절대신의 인식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냐? 자기 인식관으로는 수고가 헛되게 된다.

왜 예수님도, 선생도 예수님 영 부활이다 강조하는지 아느냐? 영 부활로 봐야 예수님의 영 재림을 맞게 되고, 땅에 예수님이 쓰는 자와 일체되어 휴거 될 수 있다. 육 부활로 믿으면 예수님의 육만 계속 기다리게 된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 영 재림을 방해하려고, 영 부활을 못 믿게 한다. 그래야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니까. 야비한 사탄과 무지한 자에게 속지 말아라. 신약 때도 이리 방해했다.

“육 부활” 기독교 교리를 깨뜨려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육 부활이 아닌 영 부활임을 설명하시며, 예수님의 영이 부활한 근거로 총 9가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2024년 3월 31일 주일말씀 참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하게 지면에 넣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31일 주일말씀 참고해 주세요.)

부활된 영의 급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2024년 3월 31일 주일말씀 참고

영이라도 다 같은 영은 아닙니다. ‘영의 급’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영형체급(일반 영, 보통 영)
- (2) 영인체급
- (3) 영완성체급(생명체 영)

- <영형체급> 영은 구름 같고, 뼈와 살이 없고 안 만져집니다.
영의 형체가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 <영인체급> 영은 어느 정도 사람같이 만들어진 영의 단계입니다.
- <영완성체급> 영은
부활되고 완성된 영으로, 뼈와 살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서 세상에 줄 것을 다 주시고 ‘완성된 영, 생명체의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으면 사람 육체같이 잡힙니다.

<시대적>으로 ‘영의 급’을 구분해 본다면, 영형체급, 영인체급, 영완성체급은 각각 구약역사, 신약역사, 성약역사에서 형성된 영들 같습니다. 비유컨대, 구약 영은 찬물 같고, 신약 영은 살얼음 같고, 성약 영은 얼음 덩이 같습니다.

완전한 생명체 급의 영으로 부활되면 이 영은 사람 육체같이 만져집니다. 이러한 완전체 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같이 신부로서 육이 행하면 영이 완전한 영으로, 사랑체로 형성되어 황금 천국에 갑니다.

[비교표]

영형체급	영인체급	영완성체급
일반 영, 귀신같은 영 뼈와 살이 없고, 안 만들어진다.	어느 정도 사람같이 만들어진 영의 단계	부활 되고 완성된 영 육체같이 실체로 생명체 영체다.
아기가 안 된 태 안의 3개월 태아 같다. 물엿 끓이기 전 같다. 구름 같고, 그림자 같고, 안개 형상 같고, 무지개 형상 같다.	살얼음 정도, 물엿 끓이는 정도 같다.	태어난 아이 같고, 엿이 다 만들어서 굳어진 상태 같다. 영의 살이 부드럽고, 잡으면 사람 육체같이 잡혀진다.
영의 형체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영이 형성되는 중이다.	완성된 영은 투명체다. 천사같이 혹은 하나님 성령같이 형체가 잡힌다.
얼음이 얼지 않은 찬물	살얼음	얼음덩이

○ 엘리야와 예수님의 재림실상비교

: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고, 이 시대 육 있는 자가 행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수레를 타고 칼과 불을 가지고 간다” 고 하셨다.<이사야 66:15~16>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신약 구원역사를 하셨다. 예수님이 말씀의 불,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셔서 역사하셨다.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왕하 2:11>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했다.<말 4:5~6> 그런데, 신약 때 엘리야의 영이 와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고, 육은 세례요한이 왔다.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사명과 심정으로 외쳤다.<눅 1:13~17> 온다는 엘리야는 영으로 오고, 세례요한이 육으로 와서 사명을 했다.

구약 때 모세가 “나 같은 자가 형제 가운데서 온다.<신 18:15>” 했는데, 신약 때 그가 말한 자로 예수님이 오시고 모세는 영이 왔다.<마 17:2~3>

그처럼, 신약때 예수님이 다시 신랑으로 온다고 하고, 구름타고 오신다고 하셨다. <마 24:30><마 25:1~13> <행 1:11> 그래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 역시, 이 시대에 영으로 오시고 이 시대 육 있는 자가 예수님의 심정과 사명으로 하나님이 외치게 하셨다. 이를 확실하게 알아야 100% 믿게 되고, 완전한 금메달 신앙이 된다.

역사는 때가 되면 1초도 늦지 않게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지구가 바로 하나님의 시계다. 지구가 도는 대로 때가 가고 시간이 가니 그때 맞춰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자를 절대 정확히 보내신다. 그를 보내어 역사를 펴신다.

성경도 최소한 이에 해당하는 성구만큼은 읽어야 한다. 비진리로는 넘어지게 되지만, 알면 어린 자라도 굳건하다. 어른이 되어도, 이것을 모르고

안 믿든지 확신이 없으면, 사탄 쪽으로 넘어갔다 하나님 쪽으로 넘어갔다 하면서 갈대 신앙이 된다. 하나님은 “좌우로 흔들리지 말라” 고 하셨다.

예수님은 이것을 선생에게 가르치셨고 하나님도 절대 맞다 하셔서 선생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커서 이것을 전하면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보다 흑암권, 무지의 옛 시대에서 나오게 하였다.

모르면 죽은 자가 되고, 사망권에서 살게 된다. 모르면 하나님도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하셨다. 알고 행하면, 사망권에서 나온다. 부활이다. 휴거다. 알면, 행하게 되어 주인이 된다.

차나 기계의 부속품도 조립시켜야 차가 되어 달리고 기계가 되어 각각 기능을 하듯이, 성경 말씀도 하나하나 배우고 모두 조립을 시켰다. ‘영의 재림’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러니 하나의 원자폭탄이 되었다. 그 누구도 아니라고 못한다. 예수님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 유대 제사장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함을 이루셨듯이, 이 시대도 그러하다.

이 시대도 신약 때같이 되었다. 예수님의 영이 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이 온다고 하는 자는 계속 기다린다. 앞으로도 1000년이 가도록 기다리느라 눈 빠지고, 힘 빠진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2000년 넘게 지금도 하나님이 오시길 기다리면서 산다.

24. 구약인들은 그때 새 시대 신약이 왔어도, 역사의 주인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아서 몰랐다. 그들은 구약에 얽아서 세월만 보내면 새 역사를 맞는 줄 알았다. 얽은뱅이 신앙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도 신약역사를 하러 오시고, 땅에 구원자 예수님도 왔다. 그런데 그들이 불신해서 모르고, 배신해서 모르고, 무시해서 모르고, 형식 신앙을 해서 모르고, 시대에 소경들이라 몰랐다.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몰랐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27.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이 “어찌하여 때를 모르느냐. 계절의 때는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기다리던 자들이 하나님과 메시아가 온 것도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28.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예수님이 영으로 왔어도 모른다.

29.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영으로 오고 실상 그 시대 사명은 세례요한이 했다.

30.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모세가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자가 온다.’ 고 하였다. 모세가 말한 것은 나 예수를 두고 말한 것이다.” 하셨다. 온 자가 알고 있으니 말해야 하지 않느냐.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한 것은,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고 육으로는 시대를 확실히 아는 사명자를 두고 말한 것이다.

32.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기에 이같이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요, 자기가 미련하여 모르고 말하는 자들이다. 미련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

시대를 알고 행한 자들은 얻고 누렸는데, 무슨 다른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은 역사의 근본 주인이 되어 땅의 사명자를 통해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 표적이 45년간 일어나 섭리사와 민족, 세계가 떠들썩했던 것이다.

33. 따라오는 섭리인들도 역사에 일어난 일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다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참여하였기에, 다 몰라서 실감이 안 나는 것이다.

34. 역사를 더 알았으면 더 확신했다. 역사에 관심이 없었기에 그동안 집중하여 표적을 다 보지를 못한 것이다.

엘리야가 영으로 승천하고 영으로 강림했듯이,
예수님도 영으로 승천하시고, 영으로 강림하십니다.
이 시대에 영으로 강림하신 예수님은 합당한 육신을 쓰고 역사하십니다.

항상 구 시대에 온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온다. 이것이 최고 비밀이다.

‘온다는 엘리야는 신약의 세례요한이다.’ 제자들 예수님 말 듣고 그때야 세례요한이 엘리야구나 했다. 온다는 예수님은 시대 사명자다. 2시간 할 것 한마디 예수님도 간단히 답 줬다. 예수님 말한 것 보면 간단히 답 주고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

구약에서 엘리야 승천하고 신약 때 세례요한 온 것처럼, 신약 때 예수님 승천하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시대 사명자와 일체되어 한 것이다. 항상 구시대에 온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온다. 이것이 최고 비밀이다.

결국 원인 세계를 보면 안다. 엘리야의 영이 심정과 사명으로 세례 요한의 육신을 쓰고 오듯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영으로 강림하셔서 그 사명과 심정으로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가르치고 하나님 일체 되어 행한 것을 전 하면 그것을 믿고 따르면 신약 예언 이루면서 구원 천년 역사 편다.

엘리야 승천했는데 다시 온다고 했다. 절대적으로 영이 오고 신약에 세례요한이 그 심정과 사명으로 오게 된다. 그러나 엘리야가 그렇게 자기로 오는 것인지 완전히 모른다. 자기 위치를 모르니 예수님 증거해도 말만 하지 잘 모른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자냐고 한 것이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는 하나님이 오기 전에 한 말이다. 그들은 하나님만 기다렸다. 반드시 선지 엘리야가 온다고 말라

기 예언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 어디 왔느냐 하니, 예수님 세례요한이 엘리야 사명과 심정으로 왔다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 세례요한이 엘리야로 왔다고 알았다. 이런 핵을 가르쳐야 더 굳건해지고 신입생도 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승천. 결국 영 와서 육 쓰고 예수님 사명과 심정으로 예수님과 한다. 이것이 핵이다. 섭리인들 핵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

엘리야 승천 보면 육이 승천한 것 같다. 하지만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엘리야 영 왔다. 모세도 영으로 왔다.

과거에 ‘오겠다.’ 고 약속한 자가 새 시대에 올 때는 그 영이 오고, 육으로는 그 시대 사람이 와서 실제로 행합니다. 육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고, 세상의 육과 통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고, 현실에는 육 있는 자가 왔습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이 다시 와서 하신다고 하고, 예수님의 영이 재림해서 땅에 보낸 자의 육을 쓰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만 오고, 실체는 육 있는 시대 사명자 쓰고 말씀을 전하여 신부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육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사명과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자세히 읽어 보기 바랍니다. 재림 역시 ‘영’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신약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엘리야의 재림실상비교’ 이것은 꼭 가르쳐라. 신약의 흐름을 모르면, 위대한 <새 역사 새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모르는 자들에게 당하고, 기성인들에게 당한다. 사람을 동으로 뜯 때가 굉장히 정교하게 뜯는다. 그래야 형상이 잘 나온다. 이와 같이 기독교가 무엇을 해석을 못 했는지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히려 약화된다. 엘리야가 신약 때 영으로 왔듯이, 육 못 오고. 육은 세례요한 아니었냐.

이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무조건 신약을 비유로 들어줘야 된다. 신약을 꼭 얘기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잘 해줘야만, 성약 때 역시 육이 못 온다는 걸, 사람들 인식을 그렇게 시켜주는 게 좋다.

○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사명

세례요한이 못한 사명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에 대해서도 기독교는 사명을 했다고 본다. 그런데 세례요한 이렇게 해서 목 잘려 죽었다 이런 소리 다 빼고, 기독교는 세례요한이 사명을 했다고 보지만 섭리는 못 한 것으로 본다. 이 시대 역사도 통일교가 못한 사명이 있으면, 세례요한이 못 한 사명을 가르쳐주는 것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때 십자가 졌다. 세례요한이 못해서 십자가 진 것을 꼭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내적으로 베드로와 바울 세우지 않았나. 섭리사도 사실 세례요한이 있다 바깥으로. 그런데 그들이 못했기 때문에 안에서 세우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온 사람들이 바로 알고 기독교와 무기로 싸워야 된다. 역사 실상 다 끝나고 휴거되고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현실만 따라가면 된다. 역사 실상 다 끝나고 휴거되었으니까. 그것만 따라가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약해서 싸움을 못 한다. 지금 우리는 다 알지만 기독교 애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기독교가 못 한 거, 뭘 못 가르쳐 주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그걸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싸울 수 있다.

○ 삼위일체

각 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땅의 성자’를 가르쳐주는 <성자론(본체 분체)>는 30개론을 다 배운 뒤에, 강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 기다리는 자는 네게서

성경에 온다고 예언된 자는 모두 땅에서 온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다리는 자는 땅에서 온다. 예수님 때도 육 가지고 땅에서 왔다. 다시 오는 자 역시 땅에서 온다는 것이다. 모세도 자기 백성들이 기다렸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 중에 기다리는 자 중에서 왔고, 선지자도 다 땅에서 왔고, 기다리는 자 중에서 맞는다.

그리스도가 육으로 온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말했다. 절대 육 있는 자가 주로 온다는 말이다. 영은 하늘서 오고, 육은 땅에서 오고 일체 되어 육의 구원을 한다. 이것이 절대 메시아는 땅에서 온다는 절대 말씀이다. 기다리는 자는 네게서 온다. 예수님은 깨닫게 마태복음 2장 계속 읽게 하셨다. 선생은 ‘아 메시아는 땅에서 오는구나.’ 하고 알았다.

유대인 율법자 하늘서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 영 하늘서 오고 기다리는 자 중에서 땅에서 예수님 메시아 왔다. 꿈쩍 못 하는 말씀이다. 재림 때도 땅에서 온다. 선생도 매일 메시아를 기다렸다. 산에 구름 지나가면 또 흙으로 표시해 놓고 밭자국 있나 보고 할 정도로.

#3 - 30개론 강의별 핵심 요약

[1] 베드로와 물고기

(핵심) 성경을 비유로 풀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비유로 풀면 순리적인데, 문자 그대로 보고 믿으려면 너무나 어렵다.

(재교육) 베드로처럼 가장 고심하던 문제가 풀린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아야 한다.

[2] 태양아 멈추어라

(핵심) 성경이 기록된 시대를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이해해야 한다.

(재교육)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역사해주시느냐에 따라 일의 승패가 좌우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시간의 칼자루 등

[3] 삼분설

(핵심) 사람은 영이 있다.

(핵심) 성경을 볼 때, 육을 두고 한 말인지 영을 두고 한 말인지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재교육) 인생 100년은 육신을 가지고 영혼을 하늘나라 가도록 만드는 기간이다. 혼체론 등

[4] 엘리야와 까마귀밥

(핵심) 성경의 비유를 풀어서 알고 보면, 기적은 상식이다.

(재교육) 시대의 악함으로 인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선지자가 오히려 핍박을 받아 죄를 탕감해주는 고난의 길을 간다.

[5] 7단계 법칙

(핵심) 진리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지식은 학문이지만, 진리는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것이다.

(재교육) 세상 지식이 아무리 크다한들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면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지 못하며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

[6] 홍수심판

(핵심) 전체심판이 아닌 부분심판이다.(공의의 하나님)

(재교육)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재림)도 이와 같다.

(재교육) 멸망을 원치 않으시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

[7] 비유론

(핵심) 성경의 모든 비유는 결국 사람을 두고 한 것이다. 말세비유, 시대비유, 독수리 비유

(재교육) 하나님은 성경을 비유로 인봉하셨고, 때가 되면 사명자를 통해서 밝히신다

[8] 구름비유

(핵심) 성경에 구름은 깨끗하게 변화된 사람이다. 지구가 공중이다.

(재교육) 깨끗하게 변화된 구름이 되어라.

[9] 불의 개념

(핵심) 성경의 불심판은 실제 불이 아닌 불같은 말씀심판이다.

(재교육) 역사의 동시성으로 이 시대도 동일한 불심판 즉, 말씀심판이다.

[10] 말세론

(핵심) 말세는 세상 끝이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다.

(재교육) 지금은 성경에 예언된 말세다.

[11] 부활론

(핵심)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시대성의 부활이다.

(재교육) 우리가 해야 할 부활도 영의 부활, 시대성의 부활, 더 좋은 부활이다.

[12] 예수님의 승천과 강림(재림론)

(핵심) 예수님의 부활은 영으로, 승천도 영으로, 강림도 영으로 이뤄진다.

(재교육) 예수님은 영으로 강림하셨다. 이를 아는 자만 알고, 모르는 자는 시대가 끝나도 모른다.

[13] 휴거론

(핵심) 휴거는 변화다.

(재교육) 지금 휴거역사가 진행중이니, 자기를 휴거의 영으로 변화시켜라.

[14] 무지속의 상극세계

(핵심) 무지로 인해(모르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여 실패했다.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배워라.(가르쳐라)

(재교육) 무슨 일을 할 때는 꼭 기도하라.(물어보라)

(재교육)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통해 역사하신다.

[15] 중심인물론

(핵심) 중심인물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재교육) 진리란 시대마다 중심인물이 선포하는 말씀이다.

(재교육) 이 시대의 중심인물을 찾으라

[16] 예정론

(핵심) 사람의 운명이 절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재교육) 예정 속에 노력하는 것이니, 각자 자기의 책임분담을 하여라.

[17] 이단의 개념

(핵심) 누가 이단인지 함부로 판단하면 안된다. 제대로 알고 믿으라.

(재교육) 하나님과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단이며, 진리를 모르는 자가 이단이다.

[18] 계시론

(핵심) 어떤 계시가 있는지 배우고 계시를 받아 원하는 것을 이루라.

(재교육) 핵심적인 계시는 주일/수요말씀이며, 성경이며, 30개론이다.

(재교육) 계시를 받았다면 꼭 실천해야 한다.

[19] 영계론

(핵심) 육의 세계가 분명히 있듯이,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핵심) 천국과 지옥의 삶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으로 결정된다.

(재교육) 황금성 천국

[20] 창조목적

(핵심)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랑을 드리는 것이다.

(재교육) 축복식 관련 설명

[21] 타락론

(핵심) 선악과가 무엇인지 알고, 유혹과 꼬임에 빠지지 말라!

(재교육) 이성교육 등

[22] 사탄론

(핵심) 사탄에 대해서 알고, 꼭 물리쳐라.

(재교육) 죄로 인해 사탄에게 네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23] 가인의 성격

(핵심) 자기 성격이 자기를 구원하게 된다. 자기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라.

(재교육)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라.

[24] 죄론 (회개론)

(핵심) 죄를 배워 알고, 죄를 짓지 말아라.

(재교육) 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문제다.

[25] 엘리야와 예수님의 재림실상 비교

(핵심) 엘리야가 영으로 승천하고 영으로 재림했듯이,

예수님도 영으로 승천하시고, 영으로 재림하신다.

(재교육)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셔서 시대 사명자와 이루신 역사

[26]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사명

(핵심) 제대로 확실하게 깨달아라!

(재교육)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주를 증거하라!

[27]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

(핵심) 말씀을 들은 자들은 모두 증인이다. 증인이 되어 증거하라!

(재교육)

[28] 한때 두때 반때

(핵심) 하나님은 역사의 때를 맞추어 정확하게 진행하신다.

(재교육) 우리의 역사, 동시성적 섭리역사 등

[29] 삼위일체

(핵심) 삼위는 일체이시며, 각위로 존재하신다.

(재교육) 삼위 앞에는 주님의 조건(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

[30] 기다리는 자는 네게서

(핵심) 항상 기다리는 자는 기다리는 데에서 온다.

(재교육) 이 시대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고, 예수님 앞에 사랑의 조건을 다 세운 자의 육신을 통해 역사하고 있다.